

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.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라고 말했어요.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.



바울은 갈라디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. 그 편지에서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. 그리고 영을 느낀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말해 주었어요.

바울의 편지는 정말 중요해서 성경에도 실리게 되었어요. 여러분도 신약전서에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 볼 수 있어요.

